제3강 : 임신과 가계 계승, 열녀 문화의 탄생

1교시 임신과 가계 계승
2교시 강요된 열녀의 탄생

1. 임신과 가계 계승
2.

○ 간선 : 신부감을 선보는 풍속
다산과 다남의 관상 - 13구 기준
눈매가 길고 눈 끝이 젖지 말아야 하며
눈썹이 길고 이마가 오똑해야 한다.
콧날이 서고 봉눈처럼 생겨야 하며
목소리가 고르고 기가 족해야 한다.
피부빛에 광택이 나고 향취가 나야 하며
살결이 부드럽고 습기가 촉촉해야 하는데
얼굴이 거위나 벼룩상일수록 좋다.
어깨가 모나지 않고 등이 두터워야 하고
손이 마치 봄에 솟아난 죽순 같으며
손바닥의 혈색이 붉어야 한다.
유두가 검고 굵어야 하고
배꼽이 깊고 배가 두툼해야 하며
엉덩이가 펀펀하고 배가 커야 한다.

○ 무자상은 절대 피하라
「증보산림경제」 등장하는 무자상 관상
노랑머리나 붉은머리의 여인
눈의 흰창이 붉거나 노른기가 있는 여인
눈이 깊숙이 들어갔거나
눈썹이 없는 것처럼 성근 여인
콧대가 꺼진 납작코 여인
이마가 높고 얼굴이 꺼진 여인
이마에 주름살이 많은 여인
미간에 마디가 있는 여인
얼굴이 길고 입이 큰 여인
얼굴이 크고 입이 작은 여인
콧구멍에 콧수염이 많은 여인

귀가 뒤로 뒤집히고 굴곡이 많은 여인
입주둥이가 불줕듯이 생긴 여인
잇념이 하얀 여인
목소리가 우뢰치듯 깨진 음성의 여인
어깨가 축 처진 여인
허리가 너무 가는 여인
엉덩이가 허약한 여인
유방이 오똑하고 유두에 하얀빛이 감도는 여인
입술에 검은 빛이 도는 여인
사타구니살이 메마른 여인

○ 성교육
성교육이란 "어떤 날에 남녀가 합방을 하면 임신할 가능성이 가장 큰가?" 하는 것. 그 '어떤 날'이 바로 한국 전통사회에서 속신으로 전해지는 '씨내리기 날', 즉 귀숙일貴宿日
"남방에서 임신하면 아기 입이 크다. 남쪽 사람들은 너그러워 어진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북방에서 임신하면 코가 높은데 북쪽 사람들은 굳세어 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질의 덕으로 10개월을 기르는데 감동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태교신기胎敎新記」)

○ 임신의 조건
조선시대 명의 허준(1546-1615)은 「동의보감」에서 "사람 사는 길이 자식을 낳는 데서 비롯한다"라며 후손의 중요성 강조.
"특히 잉태시 부친의 청결한 마음가짐은 모친의 10개월 못지않게 중요하다"
모성태교 못지않게 부성태교 강조

○ 아들 낳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결혼은 조선시대에 자식을 얻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정당한 수단
가계계승과 가부장 중심의 가족생활은 남아선호로 이어짐

○ 가계계승의 편법들
양자들이기, 씨받이
가계계승을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은 조선시대에만 볼 수 있는 풍속도이지만, 이 풍속도 유교적 가계계승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조선중기 이후에 와서야 거부감 없이 이루어짐. 맏며느리의 권한이 컸던 조선초기에는 양자에게 집안의 권한을 뺏길 것을 우려하여 양자 들이는 것을 여자 쪽에서 꺼려하기도 했음. 조선중기 제사권이 맏며느리에서 장자로 넘어가게 되면서 양자 입양이 더욱 증가함.

○ 기자습속
전통시대 기자祈子를 위한 의례에는 치성 기자의례, 주술 기자의례, 물품소지 기자의례, 복용 기자의례, 선행 기자의례, 출산력을 얻는 비방의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습속들이 있었음.
- 달힘 마시기
- 알터바위에 빌기
- 기자도끼와 개짐

2. 강요된 열녀의 탄생
○ 조선시대 여자들은 왜 열녀가 되려 했을까?
- 왕실의 열녀 : 영조의 장녀인 화순옹주(1720~1758)가 열녀문 하사 받음
1732년에 월성위 김한신과 결혼한 후 남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14일 만에 죽음 – 열녀문은 조카인 정조가 하사함
※ 조선시대 충신이나 효자, 열녀에 대한 포상은 사회의 기강이 혼란스러울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 예를 들어 당쟁이 과열되었을 때나, 스승이나 조상의 업적을 미화 혹은 과시하려는 차원에서 충신, 효자, 열녀에 대한 포상이 많이 이루어짐. 특히 열녀문은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함.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효자나 열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선전기에는 14.6%에 불과했으나, 조선중기 이후에 이들 비중이 42.3%로 증가

○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
열녀함양박씨전 : 박지원이 안의 고을 현감으로 재직하던 1796년에 쓴 것. 앞부분은 소설이고 본론 부분은 전기 형식으로 되어 있음.
박지원은 30세와 45세에 열녀전을 썼고, 함양박씨전은 세 번째로 57세에 쓴 것임.
※ 남성중심의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상을 그려내는「열녀전」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에 성리학이라는 유교 사상이 전래되면서부터.
조선시대에 와서는 삼강행실도 와 같은 책에서 다양한 형태의 열녀의 삶이 소개됨.